

# 치매안심센터 통합서비스 인기

### 남원시, 치매 전문인력 15명 배치·가족카페 설치... 하루평균 15명 방문

남원시가 보건소 내에 신축해 지난 9일 개관한 치매안심센터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남원시치매안심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컴퓨터 가족을 위한 가족카페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전문인력 15명을 배치해 상담등록검진팀, 컴퓨터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등 3개 반으로 편성,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재는 치매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 결로 찾아가는 방문형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10~15명이 방문해 치매 상담과 검진을 받고 이들 중 약 50%가 치매초기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센터에서는 경증 치매환자 중국가치매지원서비스 즉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약화를 방지 하기 위한 인지재활, 건강관리,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상 어르신은 접수, 신청하면 수시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치매가족을 위한 가족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돌봄

부담분석을 받을 수 있고 돌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교육 및 자조 모임 운영을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상담, 치매조기검진, 치매진단,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찾아가는 치매상담, 예방교실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하며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치매통합서비스도 제공하고, 12월부터는 치매 전단계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인지강화교실과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교실도 운영한다. 치매환자 및 가

족의 부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치매환자에 대해 소득기준 상관없이 치료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 충족자에 대해서만 치매약값 및 당일 병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공의수 건강생활과장은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검진하고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옥정호 생태하천복원 '참 잘했어요'

### 옥정호 환경부장관상 수상

임실군이 옥정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잘 해내면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기쁨을 토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는 생태하천 정비를 통해 세계적 관광객이 찾는 생태환경 친화적 생태환경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18 생태하천 복원 우수사례 컨테스트'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생태하천복원 컨테스트는 복원사업을 적극

적, 체계적으로 추진한 기관을 격려하고, 대국민에 사업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평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상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받아 진행됐다.

이해 환경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에 오른 11개 사업에 대해 학계, 전문기관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옥정호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에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국고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 생태하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친수와 생태,경관 등 다양한 하천 환경에 대한 체험 및 여가활동, 생태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겠다"며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오감으로 느끼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세계적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동계면, 친환경비료 업무 '대상' 수상

순창군이 친환경비료 업무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년 친환경비료 연찬회에서 순창군과 동계농협이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군은 3백만원, 동계농협은 1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순창군과 동계농협이 같은 시상대에 오르는 경계사를 맞았다.

연찬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하는 행사로, 친환경농자재 사업 우수기관 표창과 2019년 친환경농자재 사업 변경사항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규산질비료를 공동살포한 경우 살포비를 지원하고 개별살포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최자임급

상승 등으로 공동살포단 구성이 어려워져 개별살포한 농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별살포 농가에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규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들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농자재를 공급하여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이 높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 민 임실군수가 서울 석세스 어워드기초단체장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 '서울 석세스 어워드' 기초단체장 대상

### 임실군, 정치분야 기초단체장 시장군수 유일 수상

심 민 임실군수가 각 분야 혁신가들을 선정, 수상하는 '2018 서울 석세스 어워드'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심 군수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치분야 중 기초단체장 부문에서 전국 시장군수 중 유일하게 수상, 임실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와 경제, 문화 부문 수상자 및 단체 등 21명과 문화상 국회의원 등 1000여명

이 참석했다.

올해로 10회째인 석세스 어워드는 서울신문과 STV가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와 열정으로 국가와 사회·문화발전에 공헌한 단체나 개인에 주는 상이다.

심 군수는 소감에서 "임실치즈는 51년전 벨기에 신부인 지정환 신부가 산양 두 마리로 시작해 오늘날의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가 됐다"며 "앞으로는 임실N치즈를 국내를 넘어선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청렴 고사성어 현판 제막식 개최

남원시 관광과는 27일 사무실 출입문에 이두자검(以豆自檢: 품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본다)이라는 고사성어를 통해 청렴을 실천하고 공직자로서 몸가짐을 바로 해나가는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의 휘호를 제작한 김진석 흥부제작위원장과 남원시 황의훈 총무국장 이개봉하였으며, 관광과 직원들은 이두자검을 근무정신으로 삼고 하루

하루 반성과 행동의 점검을 통하여 공직자의 본분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현재 관광과장은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관광과가 솔선수범함으로써 자신의 청렴도를 점검하는 중요한 거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관광과는 이두자검이라는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자로서 현판식을 열었다

### 지역 매아리

## 남원시보건소,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2018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감염병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등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남원시는 법정 감염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완성도, 입국자 추적조사,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신종 감염병 대응업무, 예방접종률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박은순 보건지원과장은 "감염병 사전예방 및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연중 발생하는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구립면

### 작은목욕탕 내달 4일 개장

순창군이 12월 4일 구립면 작은목욕탕의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로 분주하다. 군은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계설비 시설점검, 가동 방법 등 교육을 마치고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면과 합동으로 시험가동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립면 작은목욕탕은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주 3일 운영계획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여자, 수요일에는 남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일반주민은 2,000원, 65세이상 노인은 1,000원의 이용료를 받으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구립면 작은목욕탕은 소재지종합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다 보니 다른 면에 비해 다소 늦게 준공되었다"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